



&gt;&gt;&gt; A3 SECURITYCONSULTING

## “정보보호 컨설팅 · 보안SI 선두기업 될 것”

정보보호 사전진단에서부터 체계 수립,  
시스템 구축까지 토클서비스 제공

지난해 하반기 신임 경영진 선임과 이비즈텍 합병작업을 모두 마친 국내 대표 정보보호컨설팅 전문업체 에이쓰리시큐리티컨설팅이 올해 정보보호선두업체로서 재도약에 나섰다.

올해로 창립 9주년을 맞이한 에이쓰리시큐리티컨설팅은 한재호 신임 사장체제 아래 60여명의 임직원들이 함께 앞으로 정보보호컨설팅과 위험관리시스템(RMS)을 주축으로 보안시스템통합(SI) 선두업체로 서나가겠다는 다짐과 목표를 세우고 있다.

정보통신기반보호컨설팅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컨설팅 등을 주축으로 지난 2006년까지 매년 최다 컨설팅 프로젝트 실적을 보이며 정보보호컨설팅 시장에서 자리를 굳혀온 에이쓰리시큐리티는 지난해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겪었다.

2007년 들어 성장이 크게 부진하면서 지난 하반기에는 무리하게 타사와의 합병을 추진하다 무산되고 곧바로 경영진이 전격 교체되는 위기의 파고를 넘겼다.

지난해 10월 새로운 한재호 대표체제로 변경된 후 곧바로 이비즈텍과의 합병 작업도 완료했으며 현재 조직 정비를 마치고 신규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조직정비 완료, 제2의 도약 나선다

기존에 추진해온 정보보호컨설팅 사업을 보다 강화해 사업 기반 축을 공고히 하고, 이비즈텍 합병으로 확보한 전사적위험관리(ERM) 솔루션 사업도 본격화하면서 정보보호 선두기업으로 다시 서나가겠다는 포부를 새롭게 하는 중이다.

정보보호컨설팅을 주축으로 기업의 비즈니스 전반에 걸친 취약점을 사전에 진단하고 취약점을 없애는 대응방안을 제시해 정보보호관리체계를 구축, 꾸준히 유지하도록 시스템화 하는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기업이 되겠다는 것이 에이쓰리시큐리티의 목표다.

한재호 에이쓰리시큐리티 대표는 “기업이 전사적인 보안관리 프로세스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사람, 조직, 문서, 영업, 비즈니스 등 요소에 보유하고 있는 취약점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수립,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에이쓰리시큐리티는 바로 정보보호 문제를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컨설팅을 주축으로 정보보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솔루션 사업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위험관리시스템(RMS) 전문업체인 이비즈텍과 합병한 것도 바로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안전진단, 정보보호관

기업이 전사적인 보안관리 프로세스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사람,

조직, 문서, 영업, 비즈니스 등 요소에 보유하고 있는 취약점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수립,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재호  
에이쓰리씨큐리티 대표

리체계 구축, 개발보안진단 등 각 컨설팅 영역에 맞는 솔루션과 SI 방안을 제시하는 원스톱 보안시스템 구축 사업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내부 컨설팅 역량을 다시 추스르는 한편, 새로운 RMS 솔루션 사업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올 1월까지는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컨설팅과 솔루션 사업 기반을 제대로 갖추는데 집중한다는 것.

지난해 말부터 컨설턴트들이 ‘정보보호 프론티어’ 정신을 재무장하고 지속적으로 역량을 배가시킬 수 있도록 내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컨설팅사업부와 연구소, 영업조직 외에 ‘지식사업부’도 신설했다.

‘지식사업부’에서는 컨설팅에 적용할 수 있는 신규 취약점을 찾아내고 해킹기법을 연구하고 전문기술을 개발하는 부서로, 교육사업도 이 부서에서 운영한다.

또 이비즈텍의 위험관리솔루션 제품군의 신규 브랜드 작업과 공급 사업계획 작업도 진행 중이다.

#### 정보보호 컨설팅부터 시스템 구축까지

정보보호 사전진단에서부터 적절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토클 정보보호서비스 기업이 되기 위해 에이

쓰리시큐리티는 기존에 수행해온 정보보호컨설팅 외에 솔루션과 SI로 사업을 확장에 나선다.

정보보호컨설팅 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해온 안전진단과 정보통신기반시설 컨설팅, ISMS · ISO27001 컨설팅, 고객정보보호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보안위협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개발보안진단 · 대책수립 컨설팅 등을 더욱 정형화하는 한편, 업종별 특화된 컨설팅도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이비즈텍에서 해온 기업의 전사적위험관리 시스템(ERM) 구축 컨설팅과 함께 이를 지원하는 솔루션인 다양한 위험관리시스템(RMS), ITSM(IT 서비스관리)솔루션과 시스템 구축 사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품은 IT위험관리솔루션인 ‘ERS@프라임’과 개발단계에서 보안성을 심의할 수 있는 ‘SCaS@프라임’, 고객정보영향평가시스템인 ‘PIA@프라임’, IT자산 · 서비스관리솔루션인 ‘ITAM@프라임’, ‘ITSM@프라임’ 등이 있다.

한 대표는 “단품 솔루션 공급이 아니라 컨설팅을 통해 체계를 구축하고 꾸준히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는 의료 · 통신 · 금융 등 업종별로 특화된 고객정보보호관리체계 수립 컨설팅과 솔루션을 개발해 관련 시장을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